

상징에서 나타나는 중세인의 감수성과 망탈리테 - 미셸 파스투로의 『서양 중세 상징사』 -

이해민*

미셸 파스투로 지음, 주나미 옮김. 『서양 중세 상징사』, 오롯, 2021, 479쪽.

I. 문장학에서 역사인류학과 상징의 역사로

2001년 10월 파리의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L'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저명한 중세사가 미셸 파스투로(Michel Pastoureau)의 강의를 듣기 위해 대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과 강의가 끝난 후에 줄을 서서 책에 사인을 받던 할머니 팬들의 모습이 대단히 이채로웠기 때문이다. 당시 파스투로는 『블루』, 즉 파란색의 역사에 관한 저서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주목받고 있었고 프랑스의 대중들 사이에서도 역사가로서는 드물게 스타 작가의 반열에 올

* 연세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및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라 있었다. 파스투로의 『블루』는 우리나라에서도 곧 번역되었고¹⁾ 이후 그의 여러 연구 중에서도 특히 색의 역사가 국내 학계와 출판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파스투로의 많은 업적들 중에서도 주로 두께가 얇고 쉬운 책이나 대중서 위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동안 파스투로의 학문 성과를 꾸준히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해 온 서양 중세사 전공자 주나미 박사가 『서양 중세 상징사(Une histoire symbolique du Moyen Âge occidental)』 (Paris: Seuil, 2004)를 최근에 우리말로 옮긴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책은 ‘상징의 역사’라는 독자적인 분야를 개척하고자 했던 창의적인 역사학자 미셸 파스투로가 30여 년 동안 진행해온 연구를 바탕으로, 기출간 원고들을 수정하고 일부 미출간 원고들을 덧붙여서 모아 엮은 저서이다.

『서양 중세 상징사』는 ‘상징체계의 역사’ 혹은 ‘상징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사례들을 모아서 제시한 일종의 시론(試論)이다. 서구 학계의 인류학, 미술사, 심리학, 철학, 신학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상징’을 많이 다루어왔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1970~1980년대 이후 프랑스 아날학파의 자크 르고프(Jacques Le Goff)의 주도로 “역사인류학(l’anthropologie historique)”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문화사가 발전하기 전까지 ‘상징’은 고문헌 연구를 업으로 삼던 역사학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파스투로는 1972년에 『중세 문장의 동물지(Le Bestiaire héraldique médiéval)』라는 논문으로 프랑스 국립 고문서학교(l’École des charte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별로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던 ‘문장(紋章)’이라는 일개 보조 학문을 연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크게 우려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파스투로는 중세의 문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여기에

1) Pastoureau, M. (2000). Bleu: Histoire d'une couleur. 고봉만, 김연실 옮김 (2002). 블루, 색의 역사: 성모 마리아에서 리바이스까지. 서울: 한길아트. 이 책은 몇 년 전에 다시 재간되었다. 미셸 파스투로 지음; 고봉만 옮김 (2017). 파랑의 역사: 파란색은 어떻게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서울: 민음사.

사용된 색, 동물, 식물 등을 독립적인 사회문화사 연구 주제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발전시켰다.

미셸 파스투로는 고등연구원(EPHE: É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²⁾ 교수로 재직하면서 특히 자크 르고프의 연구팀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했으며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도 강의를 하였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제3세대) 아날학파의 역사인류학에서 큰 영향을 받았고, 이런 점은 초창기의 저서 『색, 이미지, 상징: 역사학적·인류학적 연구(Couleurs, images, symboles: études d'histoire et d'anthropologie)』(Paris: le Léopard d'or, 1989)에서 잘 드러난다. 이 시절에 파스투로는 “색의 역사와 색의 인류학(l'histoire et l'anthropologie des couleurs)”을 연구한다고 천명했고, 황소와 돼지의 문화사에 대해서는 ‘상징체계의 역사(l'histoire symboliqu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에도 그는 관심 분야의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2004년에 출간한 『서양 중세 상징사』에서는 동식물의 상징, 색과 문장(紋章), 장기놀이, 아서왕 문화 등을 아우르며 “중세 서유럽 상징체계의 역사”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했다. 책의 여기저기에서 엿보이는 르고프의 영향은 서문에 해당하는 첫 장의 부제 “상상은 어떻게 현실의 일부를 이루는가?”라는 글귀에서도 드러난다. 책 전체를 통해서 허구적인 상상도 현실의 일부를 구성하며, 더 나아가 현실 그 자체라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징을 통해 매개되는 상상의 세계와 현실의 관계, 그리고 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함의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2) 1868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고등교육 및 연구 기관이다. 학교명에서 “Pratique”는 ‘pratique des recherches’, 다시 말해서 연구의 실행 혹은 수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관의 명칭에 대한 번역은 직역보다는 김응중 교수의 ‘고등연구원’이라는 의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은 처음에는 고등연구원의 제6분과(VIe section)로 설립되었다가 1975년에 독립적인 연구 및 교육 기관이 되었다. (김응중 (2001), 아날학파의 역사세계, 서울: 아르케, 25-26). 서평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프랑수아즈 코르나르트(Françoise Coornaert)의 구술회고담에 의하면, 제6분과가 독립해서 나갈 때 고등연구원 교수였던 그녀의 부친 에밀 코르나르트(Émile Coornaert, 1886~1980)가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 1902~1985)과 크게 다투었고, 이후 서로 친했던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고 한다.

이 책에서 다른 주제들의 일부는 후에 저자가 다시 몇몇 단행본으로 발전시켜 제시하였다. 그중에서 『곰, 몰락한 왕의 역사』와 『돼지에게 살해된 왕』은 주나미 박사의 번역을 통해 이 책보다 먼저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³⁾ 이와 더불어 최근에 우리말로 번역된 『빨강이 역사』도 『서양 중세 상징사』와 다른 여러 논저에서 제시한 연구들을 종합한 파스투로의 저작 중 하나이다.⁴⁾ 따라서 학술적인 측면에서 『서양 중세 상징사』는 파스투로의 종합적인 연구서들이 나오기 전후로 개별적인 주제들에 관한 연구가 제시되거나 발전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II. 중세 상징체계의 표현 방식

『서양 중세 상징사』의 첫 장은 저자의 저술 의도와 연구방법론을 명확하게 밝히는 일종의 서문 겸 총론 역할을 한다. 저자는 ‘상징’이 중세 문화에서 일상적인 사고의 기본 도구이자 감수성의 표현 양식이며, 그 자체로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징은 “말과 글만이 아니라, 이미지와 사물, 몸짓과 의례, 신앙과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11-12쪽). 저자는 ‘상징사’라는 연구 분야를 정의하고 개척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힌 후에, 중세 시대 상징의 표현 방식과 작용 방식의 특징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특

3) Pastoureau, M. (2007). *L'ours: histoire d'un roi déchu*. 주나미 옮김 (2014). *곰, 몰락한 왕의 역사*. 인천: 오롯; Pastoureau, M. (2015). *Le roi tué par un cochon: une mort infâme aux origines des emblèmes de la France ?*. 주나미 옮김 (2018). *돼지에게 살해된 왕: 프랑스 상징의 기원이 된 불명예스러운 죽음*. 인천: 오롯.

4) Pastoureau, M. (2016). *Rouge: histoire d'une couleur*. 고선일 옮김 (2020). *빨강이 역사: 인류는 왜 빨강에 열광하는가*. 고양: 미술문화. 파스투로는 그 외에도 검은색, 녹색, 노란색의 역사를 출판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개되지 않았다. Pastoureau, M. (2008). *Noir: Histoire d'une couleur*, Paris: Seuil; Pastoureau, M. (2013). *Vert: Histoire d'une couleur*, Paris: Seuil; Pastoureau, M. (2019). *Jaune: Histoire d'une couleur*, Paris: Seuil. 만약 앞으로 파스투로가 『하얀색의 역사』를 출간하게 된다면, 중세의 6가지 기본색을 중심으로 하는 색의 역사 6부작을 완성하게 된다.

정한 상징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비교하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은 책의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중세인들은 나무를 살아있는 소재로, 돌과 금속을 죽은 소재로 생각했으며, 물질의 상징성에서 전자를 후자보다 더 우위에 두었다(제4장). 나무의 상징에 대해 이해하려면 돌과 금속과 비교하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에, 각 장의 내용을 하나씩 요약하기보다는 머리말에서 제시한 중세 상징체계의 세 가지 표현 방식 및 중세 상징체계의 바탕을 이루는 세 가지 전통이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중세 상징체계의 세 가지 표현 방식 중 첫 번째는 ‘어원(étymologie)’이다. 파스트로는 중세의 상징적 사고가 언어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자크 르고프의 주장을 이어받으면서 중세의 상징에 대한 연구는 언제나 어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⁵⁾ 중세인들은 기호의 질서와 사물의 질서를 동일시하였고, 낱말에서 존재와 사물의 본질을 찾았다(15쪽). 중세의 상징은 무엇보다도 단어에서 그 의미와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책의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다. 독을 지닌 주목나무는 탁수스(taxus)라고 불렸는데, 이름 자체가 독(toxicum)을 연상시켰다(4장, 108쪽). 세비야의 이시도루스는 “색(colores)은 불이나 햇빛의 열기에서(calore) 생겨나 그렇게 불린다”라고 말했다(7장, 155쪽). 사회적으로 염색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 직업과 관련된 단어에 경멸적인 함의를 부여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중세 라틴어에서 ‘인펙토르(infactor)’는 장인 밑에서 일하는 가장 낮은 신분의 직공을 지칭하며, 동사 ‘인피케레(inficere)’도 ‘물들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변색되다’, ‘더러워지다’, ‘오염시키다’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명사 ‘인펙티오(infectio)’도 고전 라틴어에서는 ‘염색’이라는 의미만 있었지만, 여기에 ‘오염’, ‘오물’, ‘악취’, ‘질병’ 등의 의미가 더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중세의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5) Le Goff, J. (1997). *La Civilisation de l'Occident médiéval*. 유희수 옮김 (2008). *서양 중세 문명*, 개정판, 서울: 문화과지성사, 546-547.

더럽고 메스꺼운 공기와 염색통, 화로가 있는 ‘염색작업장(infectorium)’을 ‘지옥(infernum)’의 대기실에 비유하기도 했다(8장, 216-217쪽). 이처럼 언어 분석을 통해 중세인들의 사고방식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사회문화적인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유비(analogie)’ 관계는 중세의 상징이 표현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중세의 유비적 사고는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사이의 관계는 언어, 형태, 색, 소재, 숫자, 행위, 동물, 식물, 사람 등을 통해 나타난다. “중세의 사고에서는 [...] 각각의 사물과 요소, 생물들은 저마다 더 높은 차원의, 나아가 불변의 차원의 다른 어떤 것과 조응해 그것의 상징이 된다”(19-20쪽). 따라서 유비적인 사고에서는 영혼과 몸, 신과 인간, 천상과 지상 등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요소가 짝을 지어 제시되곤 한다.⁶⁾ 예를 들어, 12세기에 앙리 드 페리에르(Henri de Ferrières)는 악마적인 동물인 멧돼지의 열 가지 특성과 그리스도적인 동물인 사슴의 열 가지 특성을 짝을 이루어 설명하고, 열갈래로 갈라진 사슴의 뿔은 십계와 대응시켜 제시했다(3장, 87쪽).

마지막으로, 중세 상징체계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은 저자가 ‘기호학적’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시각적인 이미지와 문학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차이(écart), 뒤집기(inversion), 위반(transgression), 제유(提喻, *pars pro toto*) 같은 표현 방식을 말한다. 관습이나 규범과 대비되거나 이를 벗어나는 ‘차이’와 규범의 ‘뒤집기’는 악인을 물리치고 진홍의 기사가 되는 퍼시벌이나 유다의 입맞춤을 받고 머리카락과 턱수염에 유다의 붉은 털의 색이 옮겨가는 듯이 묘사되는 그리스도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한편, 중세인들은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의 모상이고 부분은 전체에 상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인의 뺨조각이나 이빨 성유물을 성인의 전신 그 자체로 여기고, 왕관과 인

6) Cf. Guerreau-Jalabert, A. (2015). Occident médiéval et pensée analogique: le sens de spiritus et caro. In Genet, J.-Ph. ed. La légitimité implicite. Paris: Éditions de la Sorbonne, 457-476.

장을 군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았다(23-24쪽). 엄격한 규범과 규칙을 따르던 중세의 문장 방패(écu)와는 달리 기사의 투구꼭대기장식(cimier)에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온갖 종류의 도형적, 조형적 유희가 허용되었는데,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위반’이었다. 투구꼭대기장식에는 가상의 혼종 동물이나 방패에 넣기를 꺼리던 부정적인 동물들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사용되곤 했다(10장, 272쪽).

중세의 상징체계는 5-6세기경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그리스도교(성서)의 유산, 그리스·로마의 유산, 그리고 만족(게르만, 켈트, 스칸디나비아)의 유산이라는 세 가지 전통이 뒤섞여 형성되었다(27쪽). 예컨대, 세 가지 유산을 모두 물려받은 사례로는 불명예스러운 붉은 색이 있다. 붉은색은 고대부터 잔인, 추악, 열등, 폭력 등을 대변하는 인물들과 연결되곤 했는데, 중세에는 점차 거짓과 배반의 색으로 특화되었고 중세의 이미지에서 유다는 종종 붉은 머리의 왼손잡이로 묘사되곤 하였다(9장). 반면에, 멧돼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대와 중세 초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중세 중기 이후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역전한 사례이다. 로마인들, 게르만인들, 켈트인들에게 멧돼지는 고귀한 사냥감이자 남성적인 힘과 용기를 칭송받는 동물이었다. 하지만, 12-13세기경부터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는 로마 시대에는 비천하게 취급되었던 사슴 사냥이 멧돼지 사냥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데에는 12세기 이후 봉건시대의 법률과 군주의 권력이 통제하는 사냥권이 발달한 점도 있지만, 특히 교회와 성직자들이 사냥의 상징적 위계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세 중기 이후 유럽의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멧돼지는 6대 죄악을 한꺼번에 지니는 지옥의 피조물이 되었고, 반면에 사슴(cervus)은 구세주(servus)를 상징하는 귀족적인 동물이 되었다(3장).

III. 중세 유럽인들의 감수성과 망탈리테

중세인들이 느끼고 사고하는 방식은 상징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이들의 상상력은 언제나 현실 세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예컨대 중세에는 동물에 관해 양가적인 감수성(sensibilité)과 망탈리테(mentalités)가 존재했다. 한편에서는 동물이 불완전하고 종속적인 피조물로 인간과 대비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동물에 대해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동물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13세기 중엽 이후 약 300년 동안 널리 실행된 동물재판은 후자와 관계가 있다. 인간에게 해를 입힌 동물(특히 돼지)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동물재판은 사람들에게 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교훈적인 예화로 기능했다(1장). 한편, ‘차이’와 ‘위반’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노랑은 배신과 거짓말의 색으로 인식되었고, 색에 대한 관념은 도상과 상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도 적용되어 유대인들을 식별하고 차별하는 기호로 사용되었다(9장, 234-235쪽).

또한 감수성과 망탈리테는 물질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중세인들에게 나무는 십자가의 이미지 덕분에 거룩함을 지니게 된 순수한 물질이었지만, 금속은 어둠과 지하세계의 산물이자 악마적이며 마법과 관련된 물질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감수성은 직업에 대한 가치체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생명이 있는 나무를 다루는 존경받는 목수와 금속과 불을 다루는 일종의 마법사인 대장장이가 모든 측면에서 대비되었다(4장, 94쪽). 중세에는 식물에 대해서도 양가적인 인식이 존재해서 모든 나무가 성스럽고 좋은 것은 아니었으며 나쁜 나무도 존재했다. 그런데 호두나무는 상징과 신화의 측면에서는 불길한 악마의 나무로 인식되었지만, 그 열매나 목재는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처럼 상상의 세계와 물질문화의 세계는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괴리가 나타나기도 했다(103-110쪽).

감수성과 망탈리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역사성을 지닌다. 색에 대한 감수성 변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토회처럼 색과 장식에 대해 부

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7장, 176-177쪽), 13세기 말까지 중세 인들은 건축과 조각에서 다색 장식을 선호했다(160-163쪽).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의 영향에 의한 흑백 대비의 선호 경향(12장, 326쪽), 중세 후기 검은색 복식의 유행은 검은색의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고(7장, 180쪽), 특히 16세기에는 종교개혁과 인쇄본 및 판화 사용의 확대로 ‘흑백’ 문화가 근세의 색의 감수성을 지배하게 되었다(190-191쪽).

파스투로는 상징을 “문화사의 자료”로 보아야 하고 현대인의 눈에 터무니 없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웃음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며(16쪽), 현대인의 지식과 관점을 과거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21쪽) 강력하게 주장한다. 중세의 상징과 감수성의 상당 부분은 현대인들이 곧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를 근대적인 이성적 사고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당시의 시대상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중세의 저자들이 낱말의 어원을 찾고 거기에 의미나 해석을 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말장난이나 어처구니 없는 과잉 해석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진지한 시도였기에 현대인의 관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저자는 과거 사람들이 보던 색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색이 같지 않다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현대인들이 예전의 상태로 되돌린답시고 유물이나 유적의 색을 다시 칠하는 행위는 ‘복원’이 아니라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시간성과 역사성을 ‘파괴’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또한 전기의 보급에 의한 조명 환경의 근본적 변화 및 컴퓨터 사용과 디지털화에 의한 색의 왜곡 현상은 현대인들이 과거와 다른 색을 보게되는 상황에 일조한다(6장, 130-132쪽). “색에 관한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152쪽)라고 한 파스투로의 문화 상대주의는 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상징체계의 역사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다.

IV. 책의 구성과 편집상의 문제

『서양 중세 상징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 뒤이어 16장에 걸쳐 개별적인 주제들이 제시되는데, 원본인 프랑스어판에서는 16개의 주제가 동물, 식물, 색, 표장(L'emblème), 놀이, 반향(Résonances)이라는 여섯 가지 대분류 하에 2-4장씩 배치되어 있다. 한국어판에서는 좀 더 균형감 있는 편집을 추구하여 <동물과 식물>, <색과 표장>, <놀이와 영향>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5-6장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우선 <동물과 식물>에는 제1장 동물재판, 제2장 사자의 대관식, 다시 말해서 중세 문화에서 사자의 지위 상승과 곰의 지위 격하, 제3장 멧돼지 사냥, 제4장 나무의 상징과 물질의 상징사, 제5장 왕의 꽃이 된 중세 프랑스의 백합꽃 문양에 대한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색과 표장>에서는 제6장에서 색의 역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종의 시론을 제시한 후에, 제7장 근세의 흑백 세계의 탄생, 제8장 중세 염색업자의 사회사, 제9장 붉은 머리의 유다 도상, 제10장 문장의 등장과 정체성의 표현, 제11장 표장과 깃발의 문화사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형식적인 균형을 지향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어판의 편집은 마지막 두 부분을 <놀이와 영향>으로 함께 묶어 버리면서 오히려 균형이 맞지 않게 되었다. <놀이>에서 다루는 내용은 제12장 체스 수용의 역사와 제13장 아서왕 문학과 기사도 이데올로기, 특히 문학의 인명이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양상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영향>에서는 '장기중세(le long Moyen Âge)'에 나타나는 상상 세계의 지속과 변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물론 제11장에서도 중세의 봉건적 표장이 왕조와 군주제의 표장으로 변화한 후에 국가나 정부의 표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10세기부터 20세기까지 장기중세적 관점의 표장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286쪽). 또한 제13장의 아서왕 문학 인명의 수용사에는 17, 18, 19세기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다(351쪽). 하지만 <영향> 부분은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나타나는 중세 문화의 잔향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 간헐적으로 근현대를 언급한

장들과는 차이가 있다.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영향>에서 제14장은 17세기 라퐁텐(1621~1695)의 동물지가 전통적인 중세 문장학의 서술 방식을 따르고 있는 일종의 “문학적 문장지”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제15장에서는 19세기 프랑스의 작가 제라르 드 네르발(1808~1855)의 시 「엘 데스디차도(El Desdichado)」가 중세 독일 음유시인들의 작품집 마네세 사본(Codex Manesse)에서 중요한 영감을 얻었으며, 이 시에 문장학적인 표현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4장과 15장은 주제 상으로는 <표장>과 더 관계가 있으며, ‘장기지속(la longue durée)’의 관점에서 본 중세 문장의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의 에필로그라 할 수 있는 제16장 ‘아이반호의 중세’는 월터 스콧(Walter Scott, 1771~1832)의 베스트셀러 『아이반호(Ivanhoe)』 수용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작품이 사람들의 집단적인 상상력 속에 장기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원형적인 중세’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르코프의 영향을 재확인할 수 있다. 파스투로가 『서양 중세 상징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장기중세’와 관련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이 나온 해에 르코프의 『장기중세(Un long moyen âge)』가 출간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⁷⁾

책의 구성상 <놀이>와 <영향>은 서로 완전히 다른 주제와 대상을 다루고 있으며, 앞의 <동물과 식물> 및 <색과 표장>으로 묶은 부분과는 달리 서로 공통점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판에서도 차라리 원본의 책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이러한 편집상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서양 중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이 책을 부지런하게 번역한 주나미 박사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몇 가지 번역 용어의 선택

7) Le Goff, J. (2004). *Un long moyen âge*. Paris: Tallandier. 이 책은 르코프가 잡지 『리스투아르(L'Histoire)』와 인터뷰한 내용을 모아서 엮은 대담집이다. 르코프는 5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시기를 ‘중세’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시대구분을 비판하면서 ‘장기중세’가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았다.

에서 이견(異見)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번역이 잘 되어 문장이 매끄럽게 잘 읽히며 우리말의 구사도 훌륭하다. 책 전체의 내용이 에피소드 중심적인 것은 파스투로의 논문집에서 종종 보이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서문에서 제시한 중세 상징체계의 표현 방식을 독자들이 본문에서 바로 상기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좀 더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 주거나, 전체 내용을 종합하는 결론을 넣었다면 약간이나마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아쉬움은 번역자가 아닌 저자에게 향하는 것이다. 파스투로는 이런 종류의 논문집을 몇 권 저술했는데, 대개 머리말은 있으나 결론에 해당되는 장을 넣지 않고 마무리되며, 독자들에게 각자 결론을 내리도록 맡겨놓는 듯하다.

미셸 파스투로는 2004년에 『서양 중세 상징사』에서 상징체계의 역사를 “틀을 갖추어야 할 역사(Une histoire à construire)”라고 말했다. 그런데, 8년 후 후속 연구로 출간한 『중세의 상징: 동물, 식물, 색, 사물(Symboles du Moyen Âge: Animaux, végétaux, couleurs, objets)』(Paris: Léopard d’or, 2012)에서도 그는 여전히 상징 연구를 “앞으로 도래할 역사(une histoire à venir)”라고 부르면서 아직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색의 역사나 동식물의 상징, 문장 연구 등에서 후세대의 학자들에 대한 파스투로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하지만, 방대한 상징들을 하나의 체계 아래에서 구성하여 중세 유럽의 상징체계의 역사로 종합하기에는 아직도 현재진행 중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파스투로 본인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서양 중세 상징사』의 저술 목표가 중세의 상징론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상징사’라는 연구 분야가 어떤 모습인지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